

“한국의 魂 알리기 · 자비나눔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합장하며 가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독송회 회원들은 매 행사마다 한복입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발족해 김재웅 지도법사의 지도 아래 수행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곳의 수행도량과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에 14개 법당을 두고 있다. 자급자족을 실천하며 금강경 50만권 보급, 한국문화알리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놀라웠고 숙연해졌습니다. 참 대단한 문명입니다.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문화 영상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내비치는 반응이다. 영국의 중심지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리는 영상회에는 옥스퍼드대를 비롯해 영국 전역의 교육기관과 여성단체,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클럽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문화를 접한다. 약 1시간 남짓의 영상회가 끝나면 이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들며 “코리아, 원더풀, 어메이징”을 연발한다.

영국뿐만 아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지와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영상회가 열리고, 불고기, 찹쌀, 비빔밥, 떡과 식혜 등 한식 시식회가 진행된다. 놀랍게도 이 행사는 불교계 민간단체가 주최한 것이다.

영상회마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한국불자들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바로 불교수행단체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다. 마음을 닦는 수행단체로 1973년 설립된 금강경독송회는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정우불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본부인 포항 금강정사를 비롯해 미국·독일·영국에 포교당을 포함해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10년째 한국 알리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또는 한국을 미개하고 뒤떨어진 나라쯤으로 알았던 미국인들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독송회 송혜경 씨는 “한국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임에도 한국인은 중국에 가면 자급성과 만리장성에 위축되고,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파르테논 신전과 콜로세움에 주눅이 든다”며 “한국이 가진 5000년의 역사와 그 속의 정신을 널리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가 마련하는 영상회는 한국어와 한

“**호국불교 보국안민 표방하며 활동 한국문화 소개 73만권 제작·배포 미국 고교 교재 채택, G20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 등 감사편지 보내와**

매주 등 자급자족 체계 재원 마련 매일 오전 3시 금강경7독으로 시작 “나라는 생각 모두 비우고 부처님 공경심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전 3시 금강경7독으로 시작 “나라는 생각 모두 비우고 부처님 공경심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전 3시 금강경7독으로 시작 “나라는 생각 모두 비우고 부처님 공경심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전 3시 금강경7독으로 시작 “나라는 생각 모두 비우고 부처님 공경심으로 살아갑니다.”**

글 영어, 독일, 불어 등 7개국 언어로 열린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6000여 회의 영상회가 국내외에서 열렸다.

‘호국불교, 보국안민’ 정신, 한국정신 담긴 책 발간 금강경독송회가 한국 알리기에 나서게 된 동기는 교포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독송회 지도법사인 김재웅 법사는 미국법회 당시 재미교포들이 인종차별과 폭력 등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뛰어난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자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20여년을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금강경독송회 임영희 씨는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차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 많은 교포들이 더욱 당당하게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뿐 아니라 출판활동도 활발하다.

처음 나온 ‘이순신 장군’은 한국어, 영어, 독일, 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이후 ‘세종대왕’, ‘충·효·예’ ‘월효 대사’ ‘홍익인간의 실천’ ‘한국의 맛’ ‘50대 문화유산 II, III’ 등은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 이탈리아어 5개 언어로 제작됐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8종의 책자 73만권이 배포됐다. 책들은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80개의 각국 대사관 및 주요대학의 외국인 교수진과 학생들, 미군 부대에 전달됐으며 국제행사와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에게도 전해졌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빈을 위한 공식 선물로도 채택돼 3000권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때 4100권으로 전달됐으며, 이에 앞서 2010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귀빈과 외신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은 이를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장이면 빠지지 않고 나가 책을 배포했다. 이런 모습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구굴에 ‘창덕궁’을 검색하면 금강경독송회가 창덕궁에서 매주 주말마다 배포하는 활동 내역이 부연설명으로 있을 정도다.

책이 나올 때마다 미국 500개 대학과 3300개 고등학교에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다른 3000개 고등학교에는 안내문만 발송하는데, 이 중 미국 공군사관학교, MIT공대, 캘리포니아대 등 미국 내 36개 대학과 54개 고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수업에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지금까지 8회의 독후감 대회를 열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3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기도 했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부시 前미국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前대통령, 힐러리 前미국 국무장관, 슈미트 독일 前 총리 등 총 120명이 넘는 국제 유명 인사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책자와 함께 석굴암, 고려대장경, 성덕대왕신종, 한글 등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영상물들을 상영하고 있으며, 미국 도서관과 문화원, 로터리 클럽 등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무료 요리강습을 하고 제사, 혼례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금강경독송회 회원 김용희씨는 “책을 읽고 감동받은 외국인들이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이란에서도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경’ 보급에도 앞장서왔다. 1968년 독송용 금강경을 처음 출간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 부의 ‘금강경’을 법보시해 금강경 독송 수행의 기반을 제공했다. 금강경독송회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군부대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자급자족하며 보살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

금강경독송회의 특징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간다는 것이다.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책을 쓰고 번역하고 배포하는 모든 일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의 자원봉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에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 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아시아 태평양전경 회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겸 원로위원 석보형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총회회장 석덕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영	감찰원장 석범현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사정원장 석법경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총무원	교구총무원	중앙위원회	부산 제2 총무원	대원불교조계종 종교교육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원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범원 정보부장 석범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회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종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지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해광사	교육원 051)893-3346 학창(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지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 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실천입니다”



2011년 8월 6일 미국 일본인 문화원 200명 지역주민에게 잡채, 비빔밥 등 한식 공양



2012년 5월 21일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 행사 모습. 독송회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가 제작한 책들. 2005년부터 제작된 책은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과 국민과 함께 유학생 등에게 제공된다.



금강경독송회는 11월 6일 좋은벗들과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번째 보시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지도법사 김재용 법사.

로 이뤄지고 있다. 책의 영문 번역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현재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항진 씨를 비롯해 금강경독송회 도반인 한운상 씨와 마트 책 스텝 씨가 돕는다. 영상 또한 독송회 회원이자 현직 의사인 강주현 씨를 중심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다.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 그것도 수행단체가 해내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지만 독송회 회원들은 금강경 수행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강경에 설해할 때 순간 올라오는 경계를 모두 부처님 전에 바치는 공부로 힘을 얻는 것이다.

19년째 매년 이웃돕기 자비행

금강경독송회는 수행하는 수자(修者)와 일반인 신자 등으로 구성된 있는데 수자들은 매일 오전 3시에 기상해 하루 금강경 7독을 하며 '미륵존여래불' 열불정진을 수행의 원칙으로 삼는다.

낮에는 농사를 짓거나 메주와 참기름, 조청 등 친환경 전통식품을 생산하면서 정진하고 있다. 농사는 물론, 옷 가게 운영 등을 통해 재원 마련한다. 회원들이 직접 콩을 키워 삶아 활동장에서 띄운 메주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김치와 만두 등을 만들어 판매해 그 수익금

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절약을 생활화해 모은 돈으로 19년째 1000만 원 이상을 이웃돕기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금강경독송회의 모습은 지도법사인 김재용 법사의 '마음살림살이' 가르침에 잘 나타나있다. '마음살림살이'란 남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부처님과 같이 여기는 수행지침이다. 특히 철저히 '나'라는 생각을 비우고 '바치는 법'을 실천한다.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은 줄 알고 그 생각 분별들을 모두 부처님전에 바치는 것이다.

김용숙 씨는 "본부터 금강경 수자님들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에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 전통식품 판매 등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자급자족 하면서 모든 지역 법당은 개인 명의로 아닌 법인 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국내에 있는 8개 법당이 해산된 뒤에는 국가에 헌납하도록 정관에 못박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숙 씨는 "책을 편찬하고, 영상회를 여는 등 한국문화에 세계에 알리는 활동은 독경이나 염불, 참선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부단히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

롭게 하려는 것이고, 또 불교의 이념이 '보국안민(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편안히 한다) 호법호국(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한다)'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이념을 어떻게 실천했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노력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인터넷(www.diamondstupa.co.kr)을 통해서도 이러한 수행법과 활동을 알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잘살기를 원하나 잘 살 원인을 지어야 한다. 부단히 복 짓기를 원 세우고 실행이 이어지면 자기의 복그릇이 커진다. 또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이 된다.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의 신(神)이 나간다. 음식도, 전기도 무엇이든 중하게 여겨 절약하는 마음에 복이 온다. 복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어야 하고, 지은 만큼 받을 뿐이다."

1998년부터 군부대에 법보시 된 김재용 법사의 <마음 닦는 법>에 나온 문구다.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는 것(通達無我法者)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이었다. 하심으로 상대방을 부처처럼 보니 삶은 궁정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일까. 금강경독송회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넘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법석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지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헤민 스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시골의 작은 암자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상황을 이루었다. 이번 법회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유명한 스님의 인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법회를 꾸준히 개최해온 나름의 교육과 홍보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에 걸쳐 장전기념일마다 명사를 초청하여 법석을 마련했던 덕분에 이번의 특별법회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기대와 관심이 더 집중된 이유다. 이제는 법회에도 뚜렷한 주제와 이벤트가 있어야 청중들이 몰리는 시대다. 달리 말하자면 진부한 법회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진 시골에 살면서도 이토록 법회에 신경 쓰는 것은 '법석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는 소신 때문이다. 흔히 불교가 살아 있다고 말할 때 절이 많고, 신도가 많아서가 아닐 것이다. 불교가 역사 속에 박제되지 않고 생동감 있다고 말할 때는 법석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찍이 서울 잠실에 도심포교를 실천하여 불광사를 창건했던 광덕 큰스님은 "천박법당이



그림 · 박구원

불공의식은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의 법회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공양시간과 차담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수행은 기분이 가벼워야 하며 신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그래서 때때로 추억에 남는 이벤트를 만들어 준다. 이번 방문하더라도 편안하고 친근한 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별법회를 준비하면서 이벤트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겨울철의 별미 '붕어빵'을 떠올리고 기계를 구입하여 구워 주었는데 싹쓸이 날씨 탓인지 그 야말로 대박이 났었다. 가을 밤, 절에서 맛보는 붕어빵은 유별났다는 후기를 읽고 손님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서 무척 흐뭇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같다.

라고 말해서 한바탕 웃기도 했다. 가수로 인기가 높은 헤민 스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시골의 작은 암자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상황을 이루었다. 이번 법회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유명한 스님의 인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법회를 꾸준히 개최해온 나름의 교육과 홍보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에 걸쳐 장전기념일마다 명사를 초청하여 법석을 마련했던 덕분에 이번의 특별법회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기대와 관심이 더 집중된 이유다. 이제는 법회에도 뚜렷한 주제와 이벤트가 있어야 청중들이 몰리는 시대다. 달리 말하자면 진부한 법회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 절에서는 법문과 기도를 포함해서

다"라고 말해서 한바탕 웃기도 했다. 가수로 인기가 높은 헤민 스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시골의 작은 암자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상황을 이루었다. 이번 법회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유명한 스님의 인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법회를 꾸준히 개최해온 나름의 교육과 홍보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에 걸쳐 장전기념일마다 명사를 초청하여 법석을 마련했던 덕분에 이번의 특별법회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기대와 관심이 더 집중된 이유다. 이제는 법회에도 뚜렷한 주제와 이벤트가 있어야 청중들이 몰리는 시대다. 달리 말하자면 진부한 법회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법문의 시간이 없다면 살아 숨 쉬는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다. 불교의 본래 모습은 불공과 기도가 아니라 법석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이기도하다.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청법(請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크고 작은 사찰에서 법문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불교는 불공이나 49재 등 중교의 식에만 치중하여 불교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석이 사라지고 기복적인 방편만 행해진다면 불교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법의 역할이 되는 법석이 자주 열려야 한다는 것이 출가 이후 줄곧 지켜온 내 신념이다.



현진 스님 (정원 마야사 주지)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브'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산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용왕·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히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 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 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역,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등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